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소년 비행의 양상 : 비교문화적 고찰

강 세 현*

- I. 문제제기
- II.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 III. 한국 소년 비행 양상의 분석
- IV. 한국 소년 비행의 특징에 대한 비교문화적 논의
- V. 맺음말

I.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 또한 적지않게 행해져 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 비행의 양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태까지 행해져 온 바대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개인과 집단의 어떠한 차이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행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작업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회와 우리 사회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소년 비행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파악하는 일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한층 깊이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산업화 이후 진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소년 비행 양상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 보고 어째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다른 사회와 차별성을 보이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년 비행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전되어 왔는가?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점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 제주대 강사 사회학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들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차이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나라 소년 비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역사적, 비교문화적 논의의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II.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1. 분석의 시각과 개념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양상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설명해 보려는 이 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 사회체계간의 범죄 양상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석 시각과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주요 범죄학 이론들(예컨대, 아노미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론, 비행하위문화론 등)은 주로 한 사회내의 개인과 집단, 환경 등에 국한된 소규모(smaller scale)적인 설명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편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최인섭, 1990, 1992), 따라서 범죄 및 비행 현상에 대한 역사적, 비교문화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회체계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범죄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존 범죄학

이론들의 협소한 관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디부터 여러 사회체계간의 범죄와 비행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명화/근대화 모형과 문화적 특수성과 범죄현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간단히 검토해보고 그로부터 어떠한 요소들이 이 글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따져보고자 한다.

1) 문명화/근대화와 범죄

최근에 하이란트와 셸리(Heiland & Shelley, 1991)가 공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명화/근대화 모형은 기존의 근대화 이론의 명제에 덧붙여 근대화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범죄와 사회 통제의 측면을 문명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비교 연구의 설명력을 한 차원 높여주고 있다. 흔히 알려져 있다시피 근대화 과정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 구조상의 변화, 경제 구조상의 변화, 과학 기술상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문명화는 전근대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성 구조 및 대인관계와 사회 통제 방식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¹⁾ 이렇듯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두 가지 개념은 서로의 다른 측면을 비추어준다는 점에서 보충적이면서도, 근대화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명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적인데, 문명화/근대화 모형에서 두 개념은 상이한 문화와 사회체계에서의 범죄와 통제 양식에 관한 비교 관점에서의 설명 시각을 제공해 준다.

1) 여기서 '문명화civilization'의 개념은 엘리야스(N. Elias)의 문명 과정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던 '거대 문명'(예컨대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등), 또는 사회체계의 '발전', '근대화'의 개념과는 색다른 전체에 기초하고 있다. 엘리야스의 문명 과정 이론에서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감정이 합리화되고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지는 psychologized' 것을 의미하며, '문명화된' 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신과의 성찰적 관계에 있어 화합pacification의 정도, 관습의 세련 정도, 감정 규제력의 정도이다(Kuzmics, 1988 : 151-3).

하일란트와 쉐리는 문명화와 근대화의 개념에 입각하여 범죄와 사회통제 양식의 발전에 관한 다음의 기본 명제를 도출해 내고 있다.

첫째, 문명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자율 규제와 증대는 사람들간의 폭력과 범죄의 성격 역시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문명 과정의 중요한 지표는 폭력 범죄의 감소와 약물 복용과 같은 자해적 범죄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명 과정은 사회의 제재 유형과 수준에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범죄 통제 영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형량의 감소,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처우와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근대화 과정에서 총 범죄율은 증대한다. 그리고 범죄 형태 면에 있어 폭력 범죄는 감소하는 대신 재산 범죄는 점증하게 되는데, 근대화된 사회에서의 재산 범죄는 성격상 절대 빈곤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범죄 기회의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이다. 따라서 근대화된 사회에서의 범죄는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흥과 쾌락을 즐기고 자기 이익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하층 계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상류층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위의 명제들로부터 이 글의 분석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 범죄율의 추세 뿐만 아니라 범죄 종류별로 상대적 비율의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문명화, 근대화 요소들과 연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명화 요소 속에는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용, 인간 행동의 자율과 책임, 타인의 인격

과 자유의 존중, 인권 및 인명 존중 의식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대화 요소 속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형태의 사회적 긴장과 부조화의 측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명화와 근대화 요소들 가운데 어떠한 측면들은 다른 측면들에 비해 우리 나라 소년 비행 특징들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문화적 특수성과 범죄

한편 한 사회의 범죄 및 비행 양상은 위에서 살펴본 문명화와 근대화 요소 이외에도 특정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행위 규범상의 차이, 사회 통제 방식상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짜임새와 문화적 전통이 범죄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연구 성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전통과 범죄의 연관성은 일본의 범죄 문제를 비교문화적으로 따져보는 연구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이다. 근대화의 정도에 있어 서구의 선진국들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일본 사회의 범죄 발생율이 서구 사회에 비해 유난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한 몇몇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무엇보다도 일본 사회에서의 비공식적 통제 체제의 발달이 일본의 낮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Braithwaite, 1989:61-5; Fujimoto & Park, 1989; Haferkamp & Ellis, 1991; Katoh, 1991; Thornton & Endo, 1992 : 21~36).

일본에서의 비공식 통제는 서구와는 다른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깊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인 서구 사회에 비

해 일본 사회에서는 집단의 가치와 기대를 중시하는 가치체계와 위계적인 인간 관계가 일상 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사회의 특징들은 집단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행위 규범의 발달과 집단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기제를 통해 개인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치 막스 베버의 종교와 자본주의 발전간의 연관성에 대한 명제를 연상케 하는 하퍼캄프와 엘리스(Haferkamp & Ellis, 1991 : 274)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 즉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개인주의 정신의 결여는 일본에서의 낮은 일탈율과 범죄 감소로 이끈다”는 언술은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잘 압축해 주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소년 비행 양상을 비교문화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이 글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 소년 비행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주의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분석의 범위와 한계

이 글의 목적은 위에서 살펴본 특정 이론의 명제들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며, 엄밀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비행간의 관계를 입증하려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 글의 범위는 우리나라 소

년 비행 양상이 산업화 이후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들 가운데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해 보는 데 국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공식 범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의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고, 이어서 세계 주요 국가(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의 공식 범죄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소년 비행의 국제 비교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추출해 본 후,²⁾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몇가지 요소들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 진행되는 ‘한국 소년 비행의 특징에 대한 비교문화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문명화, 근대화, 문화적 특수성의 요인에 기초하여 선별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명화, 근대화, 문화적 특수성 요소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년 비행의 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 요소들 가운데 특히 어떤 측면들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 우리의 소년 비행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공식 범죄 통계는 첫째, 어떤 행동은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범죄의 상당수는 발견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는 점, 셋째, 발견되더라도 보고되지 않거나 보고되더라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범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것은 정무기관에 의한 범죄 통계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실정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식 범죄 통계는 한 사회 전체의 범죄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김준호·이동원, 1991 : 30-6).

다시 말해 비교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소년 비행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성격과 효율성,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긴장과 갈등의 관리 능력, 지리적 여건, 인구학적 인 동질성 정도 등 무수히 많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 요소가 다른 사회와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지니는 문화적 전통이 소년 비행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 요소들이 과연 비행 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는 되도록 기존의 연구 문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빈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자의 논리적 추론에 그치는 부분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Ⅲ. 한국 소년 비행 양상의 분석

1. 소년 비행 양상의 변화 추세

〈표 1〉은 1965년 이래 최근까지의 소년 형법범 발생 추이를 검거 인원, 소년비 및 인구비의 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소년 형법범 검거 인원은 1960년대 이후로 1982년까지 연도에 따라 전년 보다 오히려 감소한 때도 있으나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1982년을 정점으로 하여 1983년 이래 1986년과 1989년의 일시적인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형법범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체로 12~19%의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1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10,000명당 범 죄자수를 보면 1980년에 와서 123.2명으

〈표 1〉 소년 형법범 검거 인원 및
소년비·인구비(1965—1992)

연 도	검거 인원	소 년 비	인 구 비
1965	44,619	13.5	100.9
1970	41,932	12.5	71.8
1975	60,314	16.1	86.9
1976	76,601	17.4	106.1
1977	80,574	18.3	111.2
1978	70,726	16.8	97.7
1979	73,536	16.8	102.4
1980	83,959	17.2	123.2
1981	84,275	15.0	118.6
1982	99,382	19.1	139.8
1983	93,365	18.0	131.0
1984	90,569	17.2	126.4
1985	88,298	16.8	122.8
1986	89,206	16.7	123.7
1987	80,025	14.9	111.4
1988	80,641	16.1	113.5
1989	85,428	18.1	122.5
1990	82,446	14.8	115.5
1991	72,413	12.4	108.9
1992	67,553	11.1	102.7

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983년의 139.8명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는 1989년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5년부터 1992년까지 28년 동안 소년 형법범 검거 인원은 50% 가량 증가하였으나 인구비로 보면 1992년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 죄자수는 102.7명으로 1965년의 100.9명보다 1.8명(증가율 1.0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검거 인원, 소년비, 인구비를 전체적을 고려해 볼 때, 소년 비행의 발생 정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가장 높았던 것으

〈표 2〉 주요 죄종별 소년 형법범 검거 인원
(1962~1992)

연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1962	382	4,553	20,251
1963	573	6,735	25,571
1964	808	8,439	32,175
1965	854	8,257	30,968
1966	953	5,473	21,903
1967	867	12,374	18,569
1968	974	14,422	15,988
1969	891	14,949	15,881
1970	1,114	18,404	15,588
1971	1,143	17,825	15,881
1972	1,373	18,696	20,624
1973	1,225	17,014	20,911
1974	1,689	19,600	23,496
1975	2,273	28,401	24,320
1976	2,485	34,653	32,565
1977	2,614	40,564	29,742
1978	2,468	36,347	23,460
1979	3,092	40,203	21,089
1980	4,216	42,014	29,206
1981	5,123	38,064	32,724
1982	5,663	48,751	39,145
1983	5,358	45,238	37,359
1984	5,482	46,696	35,260
1985	5,689	46,309	34,160
1986	5,178	46,189	35,551
1987	4,195	42,567	31,547
1988	4,771	45,087	28,803
1989	5,588	50,737	27,085
1990	6,261	50,075	25,404
1991	3,568	41,329	25,794
1992	3,324	36,613	26,268

주: 1) 1962년부터 1971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1972년부터 1974년까지는 치안본부,
1975년 이후부터는 대검찰청 통계 자료임.
2)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포함.
3) 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공갈,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법 포함.
4)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장물 등 포함.
자료: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72:206, 1975:
241):법무연수원(1985:209-13, 1993:103-8)

로 볼 수 있다.

한편 1962년부터 1992년까지 소년 형법범 검거 인원을 주요 범죄유형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6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의 서너 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는 해마다 폭력범죄의 발생 정도가 재산범죄 발생 정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어떤 해에는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증감 상황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에 있어 폭력범죄는 1962년에 4,553명이던 것이 1969년에는 14,949명으로 3배 정도 급증했던데 반해 재산범죄는 20,251명에서 15,88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1970년대에 폭력범죄는 1970년의 18,404명에서 1979년의 40,20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비해 재산범죄는 15,588명에서 21,089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의 폭은 폭력범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도 폭력범죄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어 1980년에 42,014명이던 것이 1989년에는 50,737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재산범죄는 29,206명에서 27,085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범죄유형별 형법범 검거 인원의 추세를 통해 볼 때, 사회경제발전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 강력범죄의 검거 인원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에 그치고 있기는 하나 강력범죄에 포함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범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인격, 가정의 평화 등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또한 사회 전체의 불안과

〈표 3〉 소년 강력범 검거 인원 및 소년비(1988~1992) 인원(소년비)

연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1988	138(18.9)	2,529(53.5)	2,036(34.9)	68(8.5)
1989	109(14.0)	3,000(52.2)	2,427(36.8)	52(6.5)
1990	160(18.2)	3,334(52.0)	2,675(36.0)	92(10.3)
1991	93(12.2)	2,238(47.9)	1,165(21.0)	72(8.7)
1992	93(11.8)	2,074(46.3)	1,069(19.9)	88(8.1)

공포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범죄에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표 3〉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강력범죄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 살인의 소년비는 11.8%~18.9%로 전체 소년 형법범의 소년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방화는 그 이하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강도의 소년비는 46.3%~53.5%, 강간은 19.9%~36.8%로 전체 소년 형법범의 소년비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특히 강도의 경우에는 소년범이 점유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청소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보아도 될 정도이다.

2. 소년 비행의 국제 비교

각국의 범죄 통계는 법률상의 범죄구성요건 및 통계상의 분류의 차이, 소년 연령의 법률상의 차이 및 통계상 연령 구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소년 비행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그러나 검거 인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연령층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거의 공통된 살인, 강도 등의 주요 죄종만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각국의 소년 비행 양상을 일관된 시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송광성 외, 1991 : 9-10). 여기서는 위와 같은 의도에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양상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4〉는 1988년 현재 주요 국가의 형법범 및 특정 6죄종에 있어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형법범 전체의 소년비에 있어서는 일본(46.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28.2%), 영국(18.6%), 서독(13.1%), 프랑스(12.0%)의 순이며 한국(8.1%)이 가장 낮다. 일본은 전체 형법범 검거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이 소년들이며, 구미의 4개국이 모두 10%를 넘고 있음에 비해서 한국은 8.1%에 머물고 있다. 특정 6죄종의 소년비를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6개국 중에서 강도, 강간에서 1위, 살인에서 2위, 절도에서 3위, 상해, 방화에서는 최하위인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이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비교대상국들 중에서 소년 비행의 흉포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현저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국가별 형법법 등 주요죄종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소년비(1988)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일 본
형법법 전체	8.1	28.2	18.6	13.1	12.0	46.7
살 인	7.1	10.8	2.2	4.4	5.1	3.0
강 도	26.4	21.9	17.7	19.9	24.2	22.1
상 해	1.9	12.7	11.0	9.0	8.4	28.2
절 도	30.1	31.8	25.9	23.1	25.5	55.6
강 간	19.3	14.5	15.1	7.1	14.8	17.5
방 화	4.3	42.9	36.2	26.9	32.6	26.8

주: 1) 전체 검거인원 중 소년 검거 인원의 비율임.

2) ‘소년’의 하한—상한 연령은 한국: 12세 이상~18세 미만, 일본·독일·미국: 18세미만(하한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행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포함), 영국: 10세 이상~17세 미만임.

자료: 송공성 외(1991: 131).

〈표 5〉 국가별 형법법 등 주요범죄 전체 및 특정 6죄종의 소년인구비(1988)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일 본
형법법 전체	5.9	21.9	30.0	33.0	14.2	13.3
살 인	0.8	6.5	1.5	2.2	1.9	0.3
강 도	18.3	88.9	44.3	63.2	53.2	2.4
상 해	6.7	140.8	275.6	302.9	45.2	52.3
절 도	251.1	1,914.0	2,209.1	2,519.7	942.2	1,033.8
강 간	16.5	15.1	14.7	5.0	7.0	1.7
방 화	0.5	22.7	41.2	45.0	11.5	1.6

주: 1) ‘소년’의 하한—상한 연령은 〈표 4〉의 주 2)와 같음.

2) 형법법 등 주요범죄 전체는 소년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 특정 6죄종은 소년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

자료: 송광성 외(1991: 132).

그러나 소년비를 통한 비교는 총인구에 대한 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소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범죄인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소년비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표 5〉는 일정한 소년인구당 소년 범죄의 비율, 즉 소년인구비를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소년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을 비교해 보면, 서독이 33.0명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국(30.0명), 미국(21.9명), 프랑스(14.2명), 일본(13.3명)의 순이며 한국은 5.9명으로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죄종별 소년인구비를 비교해 보면, 상해, 절도, 방화의 검거인원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우리 나라가 가장 낮으며 특히 절도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매우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살인, 강도의 경우는 일본이 가장 낮아서 우리 나라가 프랑스에 이어서 5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강간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가장 높게 이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 소년 비행의 특징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은 196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형법범의 검거 인원에는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형법범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2%~19%선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소년 비행 양상의 추이와 국제 비교를 통해 발견된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몇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 소년 비행 발생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소년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 면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서구 선진제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소년 비행의 홍포화 현상이 뚜렷하다. 우리 나라 전체 강력범죄 가운데 강도, 강간의 경우에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강도의 경우에는 절반 가량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또 강도, 강간, 살인에 있어서의 소년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강도와 강간은 타인의 생

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양상은 홍포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전체 소년비행 중 폭력범죄와 강력범죄를 포함하는 대인범죄(*crimes against persons*)의 비율이 재산범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의 또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시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폭력범죄는 급증해 왔으며,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력 및 폭력 범죄 인원은 재산범죄의 2배를 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소년 비행의 대인 범죄율은 14%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소년 비행의 57% 이상이 절도범이며(Lundman, 1993: 7), 일본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살인,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는 감소하는 대신 절도,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산범죄 비율이 대인범죄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Tokuoka & Cohen, 1987; Vaughn & Huang, 1992). 또한 위의 소년비행의 국제비교에서 보았듯이, 소년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절도 범죄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비해 강간 범죄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경우 대인범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IV. 한국 소년 비행의 특징에 대한 비교문화적 논의

우리 나라 소년 비행 발생 수준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째서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이는가? 그리고 폭력범죄와 강력범죄를 포함하는 대인범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소년비행의 공포화 경향을 띠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은 우리보다 앞선 어떠한 선진제국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욱 급격하고 과격한 변동 과정을 거쳐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 사회 지역 이동율은 가장 빨리 이동했을 때의 유럽, 북미, 일본 등지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으며, 직업 이동과 계급 이동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옴으로써(송복, 1990 : 13-44),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은 그 어느 사회보다 갈등과 부조화, 사회적 긴장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범죄 및 비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의 비행 발생 수준은 매우 낮은 반면 폭력화, 공포화 경향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역사적,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여기서는 사회 변동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오늘 우리의 생활 구성구석에까지 살아남아 우리의 사고와 행위 규범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의 영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① 현실 적응과 순응의 가치, ② 위계서

열적 권위관계, ③ 인권 및 인명 존중 가치의 측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한다.³⁾

위의 세가지 요소들 가운데 현실 적응과 순응의 가치, 위계서열적 권위관계 두 가지는 이 글의 예비적 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바대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일본 사회의 낮은 범죄율을 설명할 때 자주 고려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권에 속해 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사한 규범 문화의 측면이 없지는 않겠으나 한국의 행위 규범은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발달되었던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비혈연적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발달되었다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임희섭, 1991 : 355). 그리고 인권 및 인명 존중 가치는 예비적 고찰 부분에서 논의했던 문명화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 관념이 빈약했던 전래의 법문화를 오늘날까지도 답습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 현실 적응과 순응의 가치 지향

현실 긍정적이고 복종과 순응의 태도를 강조하는 행위 규범은 우리 나라 종교 문화의 특성으로부터 유래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교·유교

3) 박영신(1987 : 257, 299)은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어 온 근대화나 산업화 과정이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가치 지향성의 청산과 그 부정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 지향성의 준거들과 이어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면서,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이어받은 가족주의적 규범은 획일·위계적인 권위관계를 전제로하고 있고 복종과 친근의 관계를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독자성이 존중받기 어려운 규범적 차원을 지닌다는 점을 논증하여 밝히고 있다. 또한 임희섭(1991)은 전통적 한국 사회의 규범 문화의 특징으로 전통적 유형을 존중하는 전통주의적 생활 규범, 위계적·서열적 인간 관계, 가족주의적 집단주의를 들면서, 현대 한국의 규범 문화는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규범 문화의 전통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드러내는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하고자 하는 현실 적응과 순응의 가치 지향과 위계서열적 권위관계의 존속은 박영신, 임희섭의 논의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요소들이며, 다만 여기서는 앞의 요소들과 함께 우리의 법문화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지는 인권 및 인명 존중 가치의 미약이라는 요인을 첨가하여 그 영향을 따져보고자 한다.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래 종교들은 우리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머니즘적 현세 긍정의 가치체계와 융합되어 있으며 어느 특정 종교도 다른 종교 전통을 없애고 주도적인 종교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정재식, 1985).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종교 문화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사상사에서 부정과 변혁의 논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극단의 현실주의와 순응성이 실제적인 규범으로 되어 왔고, 특히 조선 시대의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 긍정과 복종의 규범은 한층 강화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리가 되고 있다(Hahm, 1986 : 152-79; 박영신, 1987 : 7장, 8장; 박성환, 1994). 말하자면 유교의 가치와 신념체계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일종의 기층문화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윤이흠, 1988 : 88; 권규식, 1993).

우리의 전통 종교, 특히 유교 윤리에 기반하는 현실 긍정적이고 순응적인 가치체계는 우리의 사고와 행위 방식을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유형지움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독립, 자율적 행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도전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조화,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가 중요시되어 왔다. 이에 덧붙여 우리 사회는 종교에 따라 가족내 역할 변화 및 사회화의 차이를 가져오기 어려운 '종교 속의 종교 무차이 사회'라는 분석도 있는 터에(송복, 1990 : 246),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갖느냐에 상관없이 복종과 순응의 가치와 태도는 일반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동을 추적한 논문을 보면, 경노, 충효사상, 상하의식, 스승의 존중사상, 어른 앞에 버릇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은 구한말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청소년층 사이에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가치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상승하여 198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차재호, 1986). 이와 함께 한국궐립조사연구소(1991 : 163)에서 내놓은 청소년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된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서구 사회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러한 사실들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유교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복종과 순응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율, 자극, 도전에 대한 욕구와 태도는 범죄 유발적인 요인인데 반해 그러한 욕구의 철회는 강력한 범죄 억제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Roshier, 1989 : 81-2). 그렇다면 조화와 순응의 가치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위와 도전적 태도를 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며, 우리 나라의 소년 비행 발생 수준이 서구 사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그

4)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응답율을 나라별로 보면, 싱가포르 73.7%, 한국 69.4%, 중국 66.2%, 프랑스 55.5%, 미국 52.0%, 영국 44.6%, 브라질 44.4%, 호주 33.9%, 서독 32.0%, 일본 25.4%, 스웨덴 17.0%이다.

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를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종과 순응의 태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정성, 자율성, 자극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성, 자율성, 자극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준호·이성식, 1987; 김준호 외, 1990 : 160-3),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복종과 순응의 행위 양식이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2. 위계서열적 권위관계의 존속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 내재해 있는 위계서열적 권위관계는 복종과 순응의 행위 양식을 더욱 강화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에 토대를 둔 사회와는 달리 유교적 가치관 안에서 부모 또는 윗사람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또한 그 권위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로버트 벨라, 1981 : 104-38). 이러한 유교의 원리는 오늘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살아남아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와 연령에 따른 서열 의식을 지탱시켜 주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가족과 친족체계에 관한 유교적 사고 방식이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족체계를 벗어난 사회 영역에서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복종 관계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약화되어 더이상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랐다손치더라도 가족과 친족체계와 연관된 영역에서는 유교의 원리가 여전히 상속법,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과 같은 법체계, 조상에 대한 제사, 친족집단에 기반을 둔 기업조직의 형태, 가계 계승을 강조하는 관습 등에 명백히 잔존하고 있다(De Vos & Lee, 1981). 이렇게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가족과 친족체계에 기반을 둔 유교적 권위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도 청소년들의 행동거지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1 : 156)의 청소년 의식에 관한 경험적 조사 자료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지도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⁵⁾

3. 인권 의식, 인명 존중 가치의 미약

현대 사회에서 인권 및 인명 존중의 가치는 범죄와 범죄 통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인명 존중의 가

5) “사회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지도”에서의 긍정 응답율을 나라별로 보면, 한국 83.1%, 싱가포르 77.1%, 중국 75.2%, 영국 71.6%, 브라질 67.8%, 일본 60.2%, 미국 59.9%, 프랑스 59.8%, 스웨덴 56.8%, 호주 52.7%, 서독 46.5%이다.

치는 일찍이 절대 왕정 하에서의 봉건 영주와 신민들간의 투쟁 경험을 갖고 있는 서구 유럽에서 싹텄으며, 일본에서도 그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Haferkamp & Ellis, 1991:275).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 관념이 발달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며,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권 사상이 배제된 형태의 법문화와 형사제도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철수, 1990). 우리 사회가 인권 및 인명 존중의 가치에 얼마나 무감각한가 하는 점은 우리의 범죄 통제 현실을 보면 분명해진다. 고문, 강제적인 연행과 구금, 인신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 등으로 특징되는 조선 시대에 시행되었던 비인도적이고 독단적인 형사제도는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거의 존속되었으며, 그러한 전근대적·식민지적 잔재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鈴木敬夫, 1989; 한상범·연기영, 1990).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연행 등 불법구속의 일상화, 불법적인 압수와 수색,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수형자 권리의 박탈 등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천정배, 198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89: 235-45; 대한변호사협회, 1993: 11-37).

한편 우리 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통치 권력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혹하고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폭력 조직이 선거 운동에 연관되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러한 강력한 통치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명이 잡초처럼 버려지는 사건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⁶⁾

엘리아스의 문명 과정 이론에서처럼 폭력에 대한 사고 및 행동은 거시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서로 얽혀 형성·발전되는 것으로 본다면(Elias, 1988; 최재현, 1992), 우리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경험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 속으로 침투되어 나타남으로써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우습게 알고 인명의 존엄성에 무감각한 사고와 행위 방식에 익숙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에서 현대 한국의 일상 생활에 있어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비전통적인 이기적 개인주의와 교묘하게 접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는(임희섭, 1991: 359)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밖의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적대적인 경향까지 보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폭력을 거부하지만 일상적 행위에 있어서는 폭력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준호, 1991; 이문웅, 1991). 예컨대 군대와 학교에서의 기합 또는 체벌, 부부간의 폭행 등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묵인되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는 식의 행위 방식이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거칠기만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청

6) 예컨대 5공화국 시절의 삼청교육대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무색케 할 정도로 통치 권력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정충제, 1988).

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하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구창모, 1993 : 262). 그렇다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불만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을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한국 갠즈조사연구소(1991 : 317-8)의 경험적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도 쓰겠다”는 응답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불만 해소와 욕구 해결을 위해 폭력적 범죄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다른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이 폭력적이고 흉포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 의식 및 인명 존중의 가치가 미약하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양적 및 질적 추이와 국제 비교를 통

해 발견된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특징을 우리의 문화적 전통 및 역사적 경험과 연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형법범 검거 인원에는 있어서 증가해 왔으나 소년 인구 비례로 보면 별다른 증가 현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 비행 발생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비행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제국에 비해 재산범죄보다 폭력범죄가 더 많고 흉포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 비행 발생 수준이 낮은 현상은 동양 전통 종교, 특히 유교적 가치관에 기인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했는데, 현실 적응과 순응의 가치 지향성과 위계서열적 권위관계의 존속은 비행 억제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 의식 및 인명 존중의 가치가 미약하다는 점은 아마도 우리 나라 소년 비행 양상이 폭력화, 흉포화 경향을 띠고 있다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밝혀주는 문헌들에 기초한 추론과 몇가지 단편적인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밀한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 글의 논의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 문화 전래의 유교적 가치관이 비행을 억제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청소년

7)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폭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도 쓰겠다”는 응답율을 나라별로 보면, 한국 7.8%, 브라질 5.5%, 서독 4.1%, 호주 3.7%, 프랑스 3.6%, 일본 2.7%, 스웨덴 2.6%, 중국 2.3%, 영국 2.2%, 미국 2.0%, 싱가포르 2.0%이다.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통제론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윤리를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른

다.⁸⁾ 또한 인권 의식 및 인명 존중의 가치와 같이 우리에게 부족한 근대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역시 또다른 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구창모. 1993.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서울 : 서원, pp.255-69.
- 권규식. 1993.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현대한국종교변동 연구, pp.1-72.
- 김준호. 1991. 「폭력에 대한 국민 의식 및 태도」,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pp.9-49.
- 김준호·이성식. 1987.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 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호, pp.117-46.
- _____. 외.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공부 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책연구원.
- 김철수. 1990.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동서양 비교”, 법철학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편),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서울 : 법문사, pp.149-87.
- 김충열·공번 외. 1994. 공자사상과 21세기, 서울 : 동아일보사.
-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 로버트 벨라. 1981.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박영신 옮김, 서울 : 삼영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89.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서울 : 역사비평사.
- 박성환. 1994. “한국의 종교 발전과 문화적 변용 : 막스 베버의 ‘한국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8집(겨울호), pp.53-84.
- 박영신. 1987. 역사와 사회변동, 서울 : 대영사.
- 법무연수원. 1985, 1989-1993. 범죄백서.
- 송광성 외(번역·편집). 1991. 「소년비행의 국제 비교 : 세계 주요국의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동향」,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 송 복.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 현대문학.
- 윤이흠. 1988. 「한국종교연구Ⅱ」, 서울 : 집문당.
- 이문웅. 1991. 「폭력행위의 문화인류학적 배경」,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pp.85-105.
- 임희섭. 1991. 「문화전통과 생활문화」, 미원문화재단(편),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pp.345-65.
- 전병재. 1989. 「예의 사회적 기능 : 예와 법과의

8) 최근 여러 학자들이 유교의 가치관은 그 자체가 보수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 감각에 따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용되어 왔으며 현대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전병재, 1989 ; 김충열·공번 외, 1994), 현대의 산업사회적 가치와 전통 윤리가 공존하면서 승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전병재, 1990).

-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예, 서울: 탐구당, pp.285-319.
- _____. 1990. 「한국사회병리의 현상과 그 원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사회변화와 윤리, 서울: 법문사, pp.26-56.
- 정재식. 1985. 「한국종교전통에 나타난 긍정의 논리: 사상사의 이해와 역사변혁의 문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46·47·48 합집, pp.683-720.
- 정충제. 1988.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 서울: 청사.
-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1972, 1975. 청소년 백서.
- 차재호. 1986.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서울: 법문사, pp.397-429.
- 천정배. 1989.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I)」,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3, pp.122-31.
- 최인섭. 1990. 「근대화, 사회발전과 범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호, pp.263-75.
- _____. 1992. 「범죄, 근대화, 그리고 사회발전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1992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pp.129-32.
- 최재현. 1992. 「문명과정의 이론과 결합체사회학: 노베르트 엘리아스」, 열린 사회학의 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pp.9-32.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상범·연기영. 1990. 「신생국의 탈식민지화와 법문화」, 법철학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편),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서울: 법문사, pp.47-61.
- 鈴木敬夫. 1989.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Braithwaite, John.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Vos, George and Kwang-Kyu Lee. 1981. 'An Inquiry about Possible Dilemmas of Authority in Post Colonial Korean Modernization', pp.150-72 in *Modernization of Korea and the Impact of the West*, edited by Changsoo Lee, Los Angeles: East Asia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Elias, Norbert. 1988. "Violence and Civilization: The State Monopoly of Physical Violence and its Infringement", pp.177-98 i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edited by John Keane, New York: Verso.
- Fujimoto, Tetsuya and Won-Kyu Park. 1989. "Substantive Criminal Law and Crime Problems in Japa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日本比較法研究所, 比較法雜誌, 第23卷 第1號, pp.1-25.
- Haferkamp, Hans and Hyacinthe Ellis. 1991. "Power, Individualism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Development of Criminality and Punishment in Four Cultures", pp.261-79 in *Crime and Control in Comparative Perspectives*, edited by Hans-G nther Heiland, Louise I. Shelley and Hisao Katoh, New York: Walter de

- Gruyter.
- Hahm, Pyong Choon. 1986.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Seoul : Yonsei University Press.
- Heiland, Hans-Günther and Louise Shelley. 1991. "Civi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Developement of Crime and Control", pp. 1-19 in *Crime and Control in Comparative Pespectives*, edited by Hans-Günther Heiland, Louise I. Shelley and Hisao Katoh, New York : Walter de Gruyter.
- Katoh, Hisao. 1991.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and Criminal Justice in Japan", pp. 69-81 in *Crime and Control in Comparative Pespectives*, edited by Hans-G nther Heiland, Louise I. Shelley and Hisao Katoh, New York : Walter de Gruyter.
- Kuzmics, Helmut. 1988. "The Civilizing Process", pp.149-76 i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edited by John Keane, New York : Verso.
- Lundman, Richard J. 1993. *Prevention and Control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oshier, Bob. 1989. *Controlling Crime : The Classical Perspective in Criminology*, Chicago : Lyceum Books.
- Thornton, Robert Y. and Katsuya Endo. 1992. *Preventing Crime in America and Japan*, New York : M.E.Sharpe.
- Tokuoka, Hideo and Albert K.Cohen. 1987. "Japanese Society and Delinq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 11(1), pp. 12-22.
- Vaughn, Michael S. and Frank F.Y.Huang. 1992. "Delinquency in the Land of the Rising Sun : An Analysis of Juvenile Property Crimes in Japan During the Showa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16(3), pp.273-300.